

주요 내용

국내 실물 부문

경기 종합 : 불안 요인 산재 속 성장 지속

- (99년 평가) 내수 호조속에 수출 주도 성장 기조가 본격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경기 회복세가 전개되고 있음
- (2000년 전망) 소비 증가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여건 호조로 수출 주도형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투자의 증가세 반전으로 6%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 축소와 인플레이션 가시화 등의 불안 요인도 나타날 것으로 보임

산업 생산 : 수출 확대로 증가세 지속

- (99년 평가)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내수 확대가 지속되면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였지만 부문별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음
- (2000년 전망) 향후 소비 증가 둔화가 예상되지만 투자 회복세와 대외 부문 호조로 인한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세로 생산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고용 : 실업률 하락세 둔화

- (99년 평가) 8.6% 수준까지 상승하였던 실업률은 경기 회복에 의한 취업자 수 증가로 10월에는 4.6% 수준까지 하락. 반면 취업자 수 증가가 불완전 취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고용 불안감은 해소되고 있지 못함
- (2000년 전망) 2000년 이후에도 실업률 하락 추세는 지속되겠지만 고용흡수력 저하 등의 원인으로 하락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소비 : 증가세 소폭 둔화

- (99년 평가)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위축되었던 소비 심리가 경기 회복과 함께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됨
- (2000년 전망) 소득 증가 및 소비 심리 안정 등으로 소비 증가세는 지속되겠지만 내구재 소비 증가세 둔화, 기술적 반등 효과 약화 및 물가 불안감 확산 등으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투자 : 건설투자 증가세 반전

- (99년 평가) 98년 크게 감소하였던 투자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99년 2/4분기 이후 소폭의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설비투자의 빠른 회복과 건설투자의 감소 지속이라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00년 전망) 수출 증가와 내수 호조에 따라 설비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최근의 수주 회복세를 감안할 때 민간 부문의 건설 물량 증가를 바탕으로 건설투자도 내년 중에는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됨

대외거래 : 수출입 동반 상승속 경상수지 흑자 대폭 감소

- (99년 평가) 상반기에 부진하였던 수출은 하반기들어 아시아와 유럽의 경기 회복과 엔화 강세 등 대외 여건 호조에 힘입어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0월 이후 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음. 수입도 소비 및 투자 심리 회복,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최근 40%대의 폭증세를 기록하고 있음
- (2000년 전망) 현재의 수출 호조 여건과 수입 폭증 여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원화의 절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출의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됨. 무역수지 흑자는 수입 급증으로 100억 달러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물가 : 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 우려

- (99년 평가) 하반기 들어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과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에 따라 소폭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나, 연간으로는 0.8%의 저물가 기조 유지
- (2000년 전망)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은 미미한 반면 유가 등 원자재가격, 임금·금리 등 생산요소 비용, 공공·개인서비스요금 등의 상승세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를 상회할 전망

경기 종합 : 불안 요인 산재 속 성장 지속

채 창 균

내수 호조속에 수출 주도의 성장 기조가 본격화되어 실질적인 경기 회복세가 전개되고 있음. 내년에는 소비 증가세의 소폭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여건 호조로 수출의 성장 주도 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의 회복세 지속과 건설투자의 회복세 반전으로 6%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가 대폭 축소되고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는 것과 같은 경제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음

【 99년 평가 】

- 금융부문의 호조에 힘입은 내수 증가

- 정부의 재정 팽창 정책과 저금리 기조 유지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 가시화
- 특히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증시 활황 등 금융부문의 호조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세
- 소비 증가세 지속(민간소비 증가율: 1/4분기 6.2% → 2/4분기 9.1% → 3/4분기 10.3%)
- 소비 회복 등에 의한 생산증가세가 투자 회복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조짐(설비투자 증가율: 1/4분기 12.9% → 2/4분기 37.2% → 3/4분기 48.0%)

- 하반기 이후 수출 주도 성장세 본격화

- 세계경제의 회복 조짐, 엔화 강세 등에 힘입어 하반기이후 수출 증가세가 본격화되면서 고성장을 지속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수출이 두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수출의 성장 주도 본격화 조짐

- 기술적 반등 차원을 넘어선 실질적인 경기 회복세

- 산업생산과 소비는 이미 IMF 이전 수준을 넘어섬
- 건설투자가 아직 부진하나, 설비투자는 IMF 이전의 90% 수준까지 회복됨

- 대우사태 이후 금융 불안 지속

- 대우채 환매 관련 불안감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금시장의 단기부동화 심화 및 채권시장 기능 마비 지속
- 은행 MMDA, 투신 MMF 등 단기금융상품으로의 자금 유입 증가 및 회사채·CP 단기물 위주로만 거래
- 가산금리 확대 및 투기등급물 거래 마비 등 채권시장 기능 약화
- 저금리 기조 지속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자금난 심화

- 경제의 통합력 약화

- 산업생산 증가세가 반도체나 자동차 등 일부 업종 중심으로 진행
- 중산층 붕괴, 소득격차의 확대 등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지속

- 설비투자과 수출의 질적 한계

- 바람직한 경기 회복은 설비투자와 수출에 의해 주도되어야 함
- 다행히 최근 들어 설비투자와 수출이 살아나면서 이들 요인의 수치상의 성장 기여도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음
- 그러나 투자의 내용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관련이 낮고 수출이 일부 업종에 의해 주도되는 한계가 있음
-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운수장비나 벤처기업의 사무기기 및 용품 증가에 기인한 측면도 많아, 내용상으로 볼 때 최근의 설비투자 증가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나 성장잠재력 제고와 큰 관련을 갖기 어려움
- 수출도 반도체나 자동차, 통신장비 등 일부 품목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특히 최근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전후방 연관효과도 낮고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커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기에는 부적합함

- 과열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의 물가 안정세

-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기 과열에 따른 인플레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존재
- 그러나 아직 수요측 압력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고 원화가치 절상의 영향도 있어

99년에는 1%에도 못미치는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

- 정부의 경상수지 흑자 목표 달성 불투명

- 최근의 수출 급증에도 불구하고, 수입도 동반 급증하고 있는데다, 유가 상승과 엔고의 영향으로 수입액이 늘어나 정부 목표인 경상수지 250억 달러 달성 가능성은 낮음

【 2000년 전망 】

- 성장 강화 요인

- 미국이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착륙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 유럽, 동남아 경제의 회복세 등에 따라 세계경제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
- 완만하나마 엔고의 지속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
- 총선 이전까지는 정부가 긴축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으며, 총선 이후라 하더라도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경우 긴축기조로의 전환 가능성이 낮아질 것임
- 임금 상승세와 실업률 감소 추세에 힘입어 소비증가세 지속, 그러나 이연소비의 마무리와 자산효과의 제약으로 소비 증가세는 99년보다 둔화될 전망
- 가동률이 80% 내외에 달하여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지속될 여지 상존
- 건설투자의 저점에 1~4분기 선행하는 건축허가면적이 99년 2/4분기에 증가세로 반전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건설투자가 회복세로 반전될 전망
- 일부 기업 구조조정의 성과 가시화에 따른 생산성 제고

- 성장 저해 요인

- 대우 사태의 완전 해결까지 상당 시일 소요
- 총선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하면 정부 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변할 가능성
- 대우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투신사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불안이나 정부의 긴축기조, 경기 회복 지속 등의 여파로 금리는 상승 기조를 타게 될 전망
- 99년보다 상승세는 둔화되겠지만, 배럴당 25 달러를 조금 웃도는 고유가의 지속
- 경기회복과 기업실적 호전에 따른 근로자들의 소득 보상 욕구 증대, 총선에 따른 사회 분위기 이완, 소득분배 악화의 지속으로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국민여론이 우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 우

려

- 99년과 같은 기술적 반등 효과의 약화 내지 소멸
- 재고의 경제성장 기여 효과 약화
- 원화가치의 절상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
- Y2K로 인한 경제활동의 일시적 차질 우려
- 빅딜에 따른 생산 축소, 부채비율 감축 실패 기업의 고용 조정 및 투자 부진, 지배 구조 개선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상대적 투자 여력 감소) 등 기업 구조조정 의 지속에 따른 부정적 효과 발생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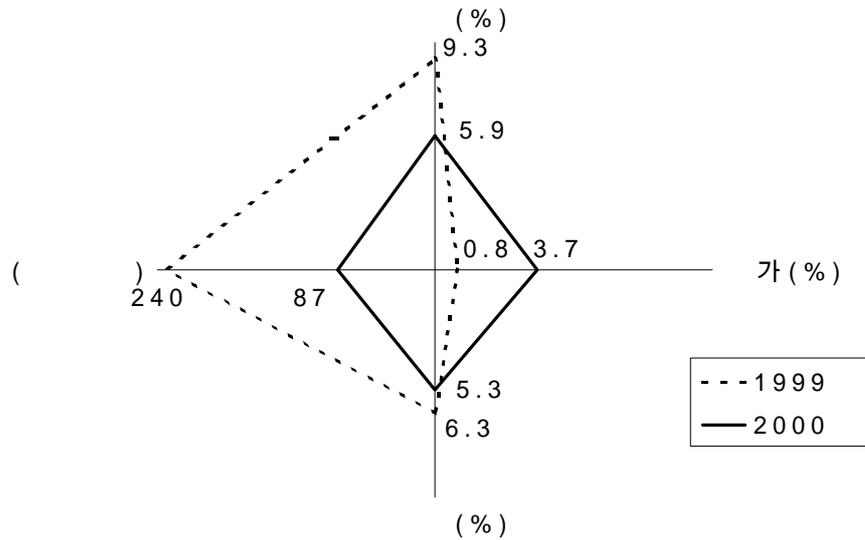
- **종합적으로 볼 때 성장 기조는 지속: 6% 내외의 성장 전망**

- 소비 증가세의 소폭 둔화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의 회복 및 설비투자의 증가세 지속에 따른 투자 증가세 확대에 여전히 내수 주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 여기에 더하여 세계경제의 회복세 및 엔고에 따른 수출 증가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확대될 전망

- **불안 요인 심화: 경상수지 흑자폭 대폭 축소 및 물가 불안 우려**

-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 및 엔고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과 경기회복세 지속에 따른 수입 급증세 지속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은 99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
- 경기회복세 지속에 따른 수요측 압력의 가시화 가능성이 크지 않을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유가, 금리, 임금 등 비용 요인의 상승과 공공요금의 인상 및 그 여파로 서비스 요금의 상승, 그에 따른 인플레이 기대심리의 확산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 후반대에 달할 우려

<99년, 2000년의 주요 경제 지표 변화>



-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과제: 구조조정의 지속과 경제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
 -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 및 경제효율 제고를 위한 합리화·자동화 투자, 연구개발투자의 제고 없이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고성장·고물가·경상수지 적자로 특징지어지는 외환위기 이전의 경제상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음
 -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과 합리화·자동화 투자 및 연구개발투자의 활성화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인플레이 압력을 낮추고 수출을 고부가가치화하며 수입유발 정도를 낮추는 노력이 2000년에도 지속되어야 함

<99년 및 2000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

구분	1998년	1999년(전망)			2000년 (전망)	
		상반기 (실적)	하반기	연간		
국민 계정	국내총생산(%)	-5.8	7.3	11.2	9.3	5.9
	총소비(%)	-8.2	6.2	7.7	7.0	5.9
	민간소비(%)	-9.6	7.7	9.3	8.5	6.5
	총고정자본형성(%)	-21.1	0.6	8.0	4.5	11.5
	건설투자(%)	-10.2	-10.8	-7.9	-9.2	7.7
	설비투자(%)	-38.5	24.8	48.5	36.4	17.8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달러)	400	123	114	240	87
	무역수지(통관기준)	390	117	104	221	97
	수출(억 달러)	1323	661	750	1412	1505
	(증가율, %)	(-2.8)	(-1.5)	(15.3)	(6.7)	(6.6)
	수입(억 달러)	933	543	648	1191	1408
	(증가율, %)	(-35.5)	(15.1)	(40.5)	(27.6)	(18.2)
가격 지표	소비자물가(평균, %)	7.5	0.6	1.0	0.8	3.7
	회사채수익률(평균, %)	15.1	8.1	9.5	8.8	10.5
	원/달러 환율(평균, 원)	1403.3	1195	1184	1189	1090
실업률(평균, %)	6.8	7.5	5.2	6.3	5.3	
국제유가(WTI, 기말, \$/bbl)	11.66	20.53	26	26	20	
엔/달러 환율(기말)	114.83	121.23	105	105	100	

산업 생산 : 수출 확대로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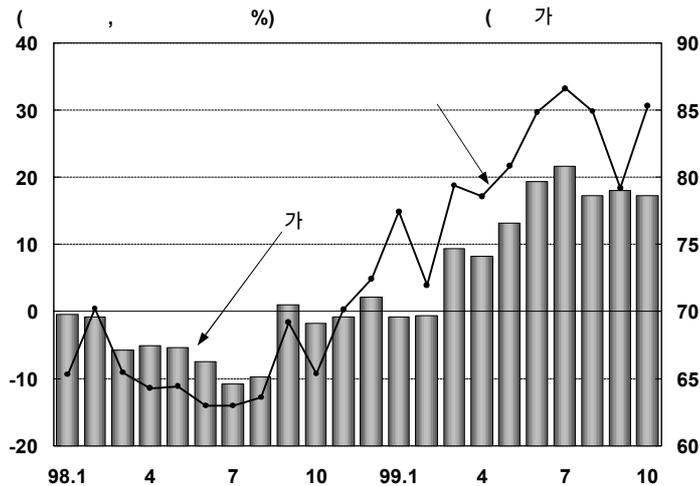
이 보 성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내수 확대가 지속되면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였지만 부문별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음. 향후 소비 증가 둔화가 예상되지만 투자 회복세와 대외 부문 호조로 인한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세로 2000년 들어서도 생산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99년 평가】

- (동향) 98년 하반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산업 생산은 99년 들어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섬
 - 99년 10월 중 산업 생산은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10월의 118.2% 수준을 기록
 - 10월 중 산업 생산 동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컴퓨터 등 사무회계용 기계(전년동기 대비 140.7%), 음향 통신 기기(83.0%), 반도체(45.1%), 자동차(36.1%) 등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최근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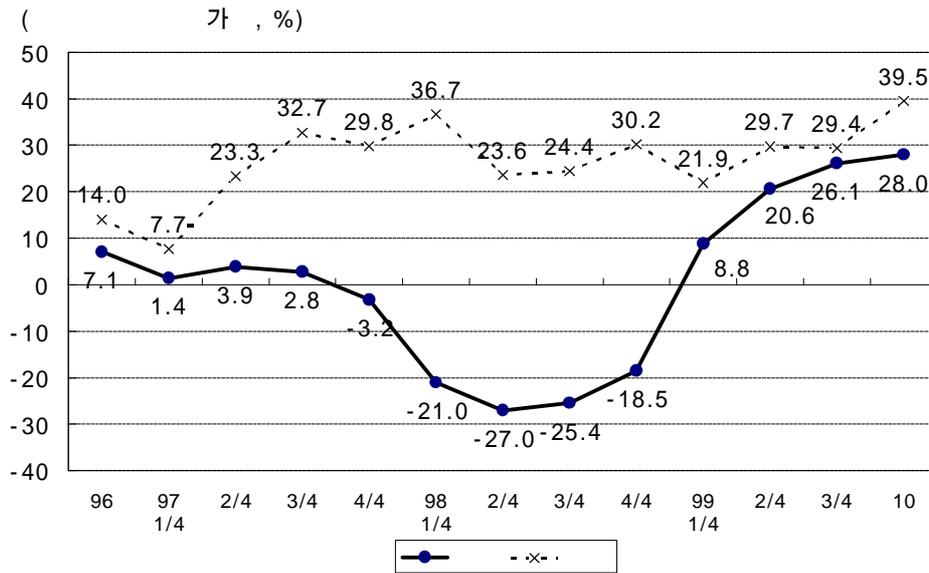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60%대에 머무르며 한때 64.6%(98년 7월)까지 하락하였던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99년 3월 이후 70%대를 기록, 10월 중 78.6%까지 회복됨

- (산업생산 증가의 원인)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내수 부분의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임

- 1/4분기 중에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생산 증가를 견인하였으나, 2/4분기 이후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내수가 회복되면서 생산 증가세가 더욱 확대됨
- 내수 출하의 증가세는 전반적인 소비 심리 회복과 설비투자 증가에 기인하고 있지만, 전년의 급속한 위축(98년 2/4분기 내수 출하 증가율 -27.0%, 3/4분기 -25.4%)에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가 약화되는 4/4분기 이후에는 다소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수출 및 내수 출하 증가율 추이>



【부문별 생산 불균형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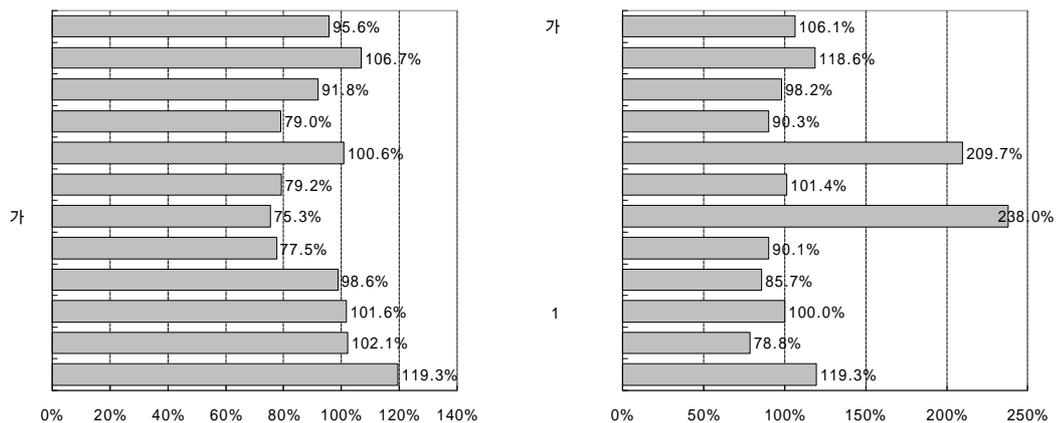
- (규모별) 외환위기 이후 심한 불균형을 보였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수준이 생산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음

- 99년 3/4분기의 경우 대기업 생산은 97년 대비 22.8%의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 생산은 97년 동기의 96.2%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99년 1/4분기 중 양부문간의 생산 수준 격차는 97년 1/4분기에 비해 33.0%까지 확대되었고 현재까지도 26~27%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업종별) 제조업 전체 생산 수준은 97년 수준을 넘어섰으나 업종별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음

- 10월 중 제조업 생산은 97년 동기에 비해서는 19.3%, 98년 동기에 비해서는 31.4% 증가한 수준을 보임
- 반면, 제조업 22개 업종 중 외환위기 이전 수준(97년 10월)을 넘어선 업종은 사무기계(97년 10월의 238.0%), 영상·음향·통신(209.7%), 운송장비(118.6%), 화합물(106.7%) 가구(106.1%), 음식료품(102.1%), 담배(101.6%), 전기기계(101.4%), 펄프종이(100.6%), 1차 금속(100.0%) 등 10개 업종에 불과하고 나머지 12개 업종은 외환위기 이전 생산 수준에 못 미침
- 또한 제조업 전체 평균 생산 증가(19.3% 증가)를 넘어선 업종이 사무기계, 영상·음향·통신 등 4개 업종에 불과함

<업종별 생산 수준 비교(1997년 10월= 100%)>



-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 부문) 생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중화학 공업의 경우 99년 10월 중 생산 수준이 97년 10월에 비해 26.9% 증가하였으나 경공업은 97년의 94.2% 수준에 불과함
- 또한 97년 10월에 35.9p였던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의 생산지수 차이도 98년 10월 48.0p, 99년 10월에는 77.3p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음

【2000년 전망】

- (성장 요인) 엔화 강세, 세계 경기 회복 등 대외 여건의 호전으로 2000년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산업 생산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들어 엔고 효과 가시화와 해외 여건 호전으로 가파른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수출이 향후 생산 증가를 주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건설투자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산업 생산 증가세를 부추기게 될 것으로 보임
- (성장 저해 요인) 반면, 그동안 생산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기술적 반등효과가 소멸됨에 따라 높은 생산 증가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물가 불안 우려 및 이연소비 효과 소멸로 소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산업 생산 증가율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99년 GDP 성장률은 9.3%, 2000년 5.9%를 기록할 전망이다

<GDP 성장률 전망>

(전년동기대비, %)

	98년(e)	99년(p)			2000년(p)
		상반기(실적)	하반기	연간	연간
GDP 성장률	-5.8	7.3	11.2	9.3	5.9

(bslee@hri.co.kr ☎724-4035)

고용 : 실업률 하락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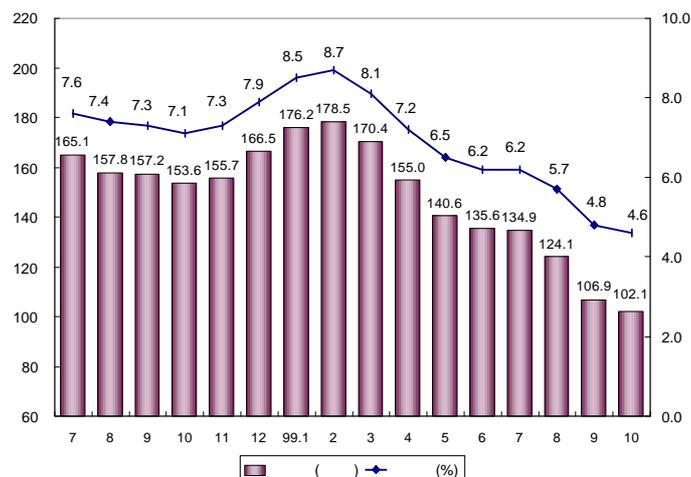
이 보 성

외환위기 이후 8.6% 수준까지 상승하였던 실업률은 경기 회복에 의한 취업자 수 증가로 10월에는 4.6% 수준까지 하락하였고 구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함. 그러나 취업자 수 증가가 불완전 취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고용 불안감은 해소되고 있지 못함. 2000년 이후에도 실업률 하락 추세는 지속되겠지만 고용흡수력 저하 등의 원인으로 하락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실업률 하락세】

-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실업률은 99년 2월 중 지난 66년 이후 최고치인 8.6%(실업자 수 178.1만 명)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반전됨
 - 10월 중 실업률은 4.6%, 실업자 수는 102.1만 명을 기록
- 실업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경기 회복으로 전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
 - 10월 중 취업자 수는 경기 회복 및 농작물 수확기로 인한 제조업, 농림어업 부문 증가로 9월에 비해 15.5만 명(0.7%), 전년동기 대비로는 90.7만 명(4.5%) 증가
 - 부문별로는 제조업(전월 대비 5.9만 명, 1.4%), 농림어업(9.3만 명, 3.6%) 등이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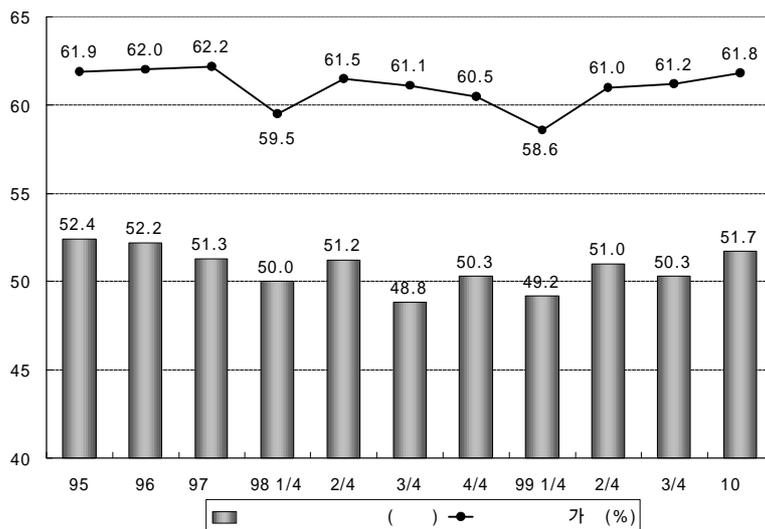
<실업률 추이>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 10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97년 12월(62.3%) 이후 최고치를 기록
 - 경제활동참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에 보통 62%대를 유지하다 97년 12월에 61.0%로 떨어진 뒤 98년 1월 58.9%, 5월 61.7%, 9월 61.2%, 12월 59.8%, 올해 2월 57.9%, 5월 61.0%, 8월 60.8% 등을 나타냄
 - 외환위기 이후 47.1시간(98년 8월)까지 떨어졌던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51.7시간으로 97년 10월의 52.8시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경기 회복에 따른 구직 가능성 증대로 그동안 노동시장을 이탈하였던 근로자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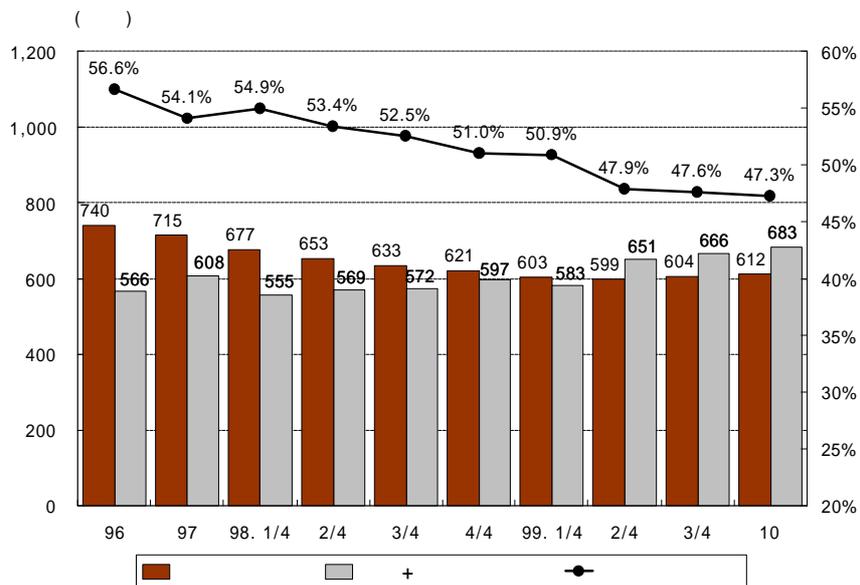


【고용 불안 상황 지속】

- 취업자 수 증가가 상용직보다는 임시직 및 일용직 등 불완전 취업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고용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중 임금근로자 중 54.1%를 차지하던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99년 10월 중에는 47.3%로 하락하였고 상용직 근로자 수는 100만 명 이상 감소함 (97년 715.1만 명→ 99년 10월 611.4만 명)

- 임시직 및 일용직 등 불완전 취업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일용직의 비중 증가(97년 14.3% → 99년 10월 19.2%)가 임시직의 비중 증가(31.6%→33.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렇듯 최근의 취업자 증가는 건설노무자,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 등과 같이 고용이 크게 불안정한 일용직의 증가에 주도되고 있어 고용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음

<취업형태별 임금근로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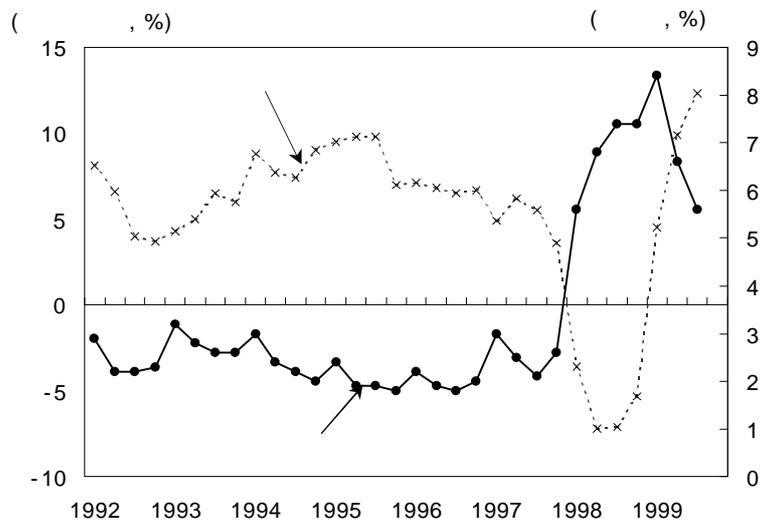


【2000년 전망】

- (실업률 하락 요인) 2000년 이후에도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생산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실업률의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내년 상반기 이후 고용흡수력이 큰 건설투자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취업자 증가 추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실업률 하락 저해 요인) 구조조정 등을 거치면서 노동 절약적 기술들이 도입되고 경제 전반의 고용흡수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급격한 실업률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또한 그동안 구직난으로 구직 활동을 포기하였던 실망노동자들과 소득 손실 보전을 위한 여성이나 고령층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예상되고 공공근로 사업도 대폭 축소되면서 실업률 하락 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 농한기로 농업부문의 취업자가 감소하고 신규 졸업자들이 본격적인 구직활동에 나서게 되는 1/4분기 중에는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함

<실업률과 성장률간의 관계>



<실업률 전망>

(%)

	97년	98년	99년			2000년 (전망)
			상반기 (실적)	하반기 (전망)	연간 (전망)	
실업률(평균)	2.6	6.8	7.5	5.2	6.3	5.3

(bslee@hri.co.kr ☎724-4035)

소비 : 증가세 소폭 둔화

이 보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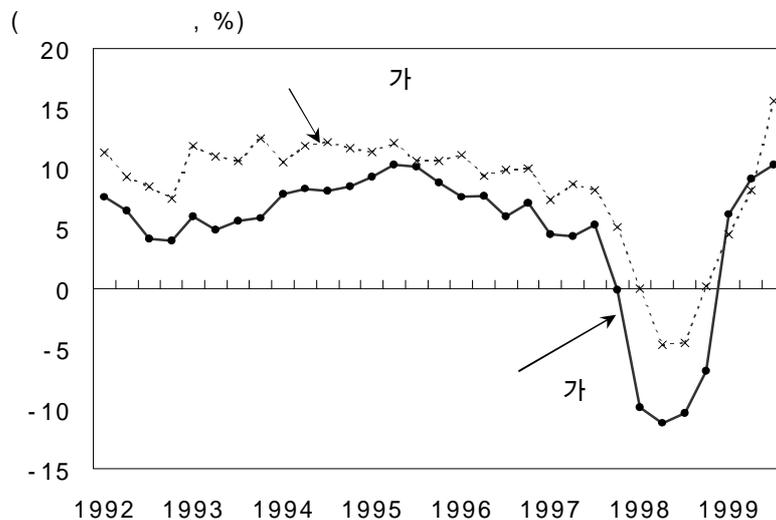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위축되었던 소비 심리가 경기 회복과 함께 회복되기 시작하

면서 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2000년에도 소득 증가 및 소비 심리 안정 등으로 소비 증가세는 지속되겠지만 내구재 소비 증가세 둔화, 기술적 반등 효과 약화 및 물가 불안감 확산 등으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99년 평가】

-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위축되었던 소비 심리가 99년 들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소비 증가세가 지속됨
 - 99년 상반기 중 7.6%의 증가세를 보였던 민간소비는 3/4분기 들어서도 10.3%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98년의 급속한 위축(연간 9.6% 감소)에서 벗어남
 - 10월 중 도소매 판매 증가율도 15.7% 증가율을 기록, 4/4분기 들어서도 소비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음
 - 3/4분기 민간 소비 수준은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3/4분기의 98.8% 수준, 10월 중 도소매 판매는 97년 10월의 100.4% 수준을 기록

<최근 소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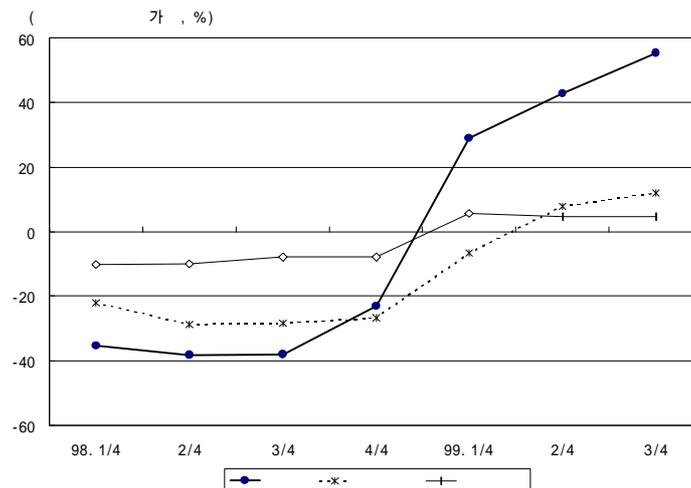


【소비 회복세 지속의 원인】

- (이연소비 효과의 지속) 내구재 소비 증가세 확대 등 이연 소비 효과 지속
 - 3/4분기 내구재와 준내구재에 대한 소비 증가율이 각각 55.3%, 11.9%를 기록하여

- 전분기(42.8%과 7.9%)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비해 비내구재에 대한 소비 증가율은 전분기와 같은 4.6%를 기록하여 증가세가 정체됨
 - 그 특성상 소비 시점을 연기하기 쉬운 내구재의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경기 회복과 함께 그동안 연기되었던 소비가 나타나는 이연소비 효과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임
 - 그러나 내구재의 소비 증가세는 이미 전년 동기의 급속한 위축에 의한 기술적 반등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자동차 신모델 출시, 국민 PC 보급 등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형태별 소비 증감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1999년 3/4분기 국내총생산(잠정)', 1999. 1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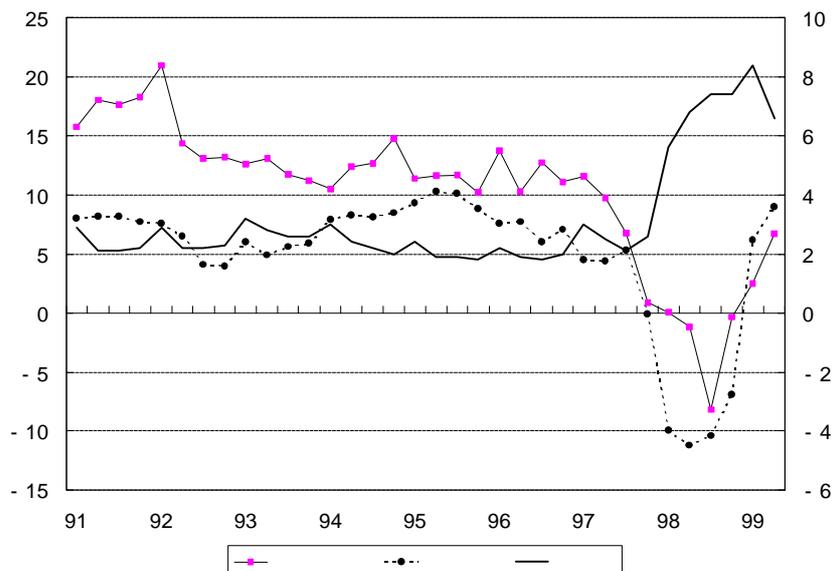
- (빠른 소득 증가세)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9월까지의 근로자들의 명목 임금은 전년동기 대비 10.6% 상승하였고 3/4분기 도시가구근로자의 실질소득도 8.5% 증가하는 등 소득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주가의 대폭 상승에 따른 재산 소득 증대의 영향도 작용
- (고용 불안감 완화) 실업률이 예상보다 빠른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있는 것도 소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00년 전망】

- (소비 확대 요인) 2000년 들어 민간소비는 임금 상승 및 소득세 인하 등에 의한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와 실업률 하락 등에 의한 소비 심리 안정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수 것으로 전망됨
 - 경기 회복에 따라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이 2000년에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여기에 소득세 인하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 및 특소세 인하로 인한 일부 제품의 가격 인하도 소비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민간소비와 실업률, 임금상승률의 관계>



- 또한 소득 증가와 실업률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계의 소비 심리가 안정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도 견조한 소비 증가세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소비 제약 요인) 물가 불안 우려와 반등 효과 및 이연소비 효과의 소멸 등으로 소비 증가세는 99년보다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 원유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및 내수 확대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전

년의 급속한 위축에 기인한 기술적 반등효과가 소멸되면서 소비 증가세는 올해보다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임

- 경기 후행적인 성격을 띠는 비내구재에 대한 수요는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에 대한 소비는 이연소비 효과가 소멸되면서 2000년 들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 민간소비 증가율은 99년 8.5%, 2000년 6.5% 증가를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 전망>

(전년동기대비, %)

	98년	99년			2000년(전망)
		상반기(실적)	하반기(전망)	연간(전망)	
최종소비지출	-8.2	6.1	7.7	7.0	5.9
민간소비	-9.6	7.6	9.3	8.5	6.5

(bslee@hri.co.kr ☎724-4035)

투자 : 건설투자 증가세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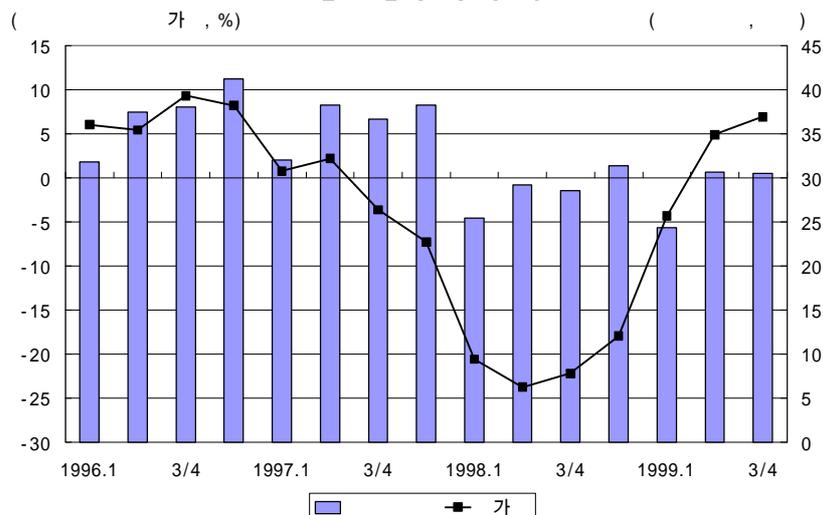
전 민 규

설비투자의 빠른 회복과는 대조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있는 건설투자는, 최근의 수주 증가세와 경기 회복에 따른 민간 건물 건설 수요 증가세 등을 감안할 때, 2000년에는 소폭의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됨

【99년 평가】

- 97년 3/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여왔던 고정투자는 99년 2/4분기 들어 7분기만에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 97년과 98년 중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던 투자는 99년 2/4분기 이후 소폭의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 총고정투자가 증가세로 반전된 것은 경기 상승에 따른 투자 심리 회복에 원인이 있으나, 98년 투자가 지나치게 부진하였던 것에 대한 계산상의 증가에 불과한 측면도 있음. 실제로 99년 중의 투자 수준이 96년과 97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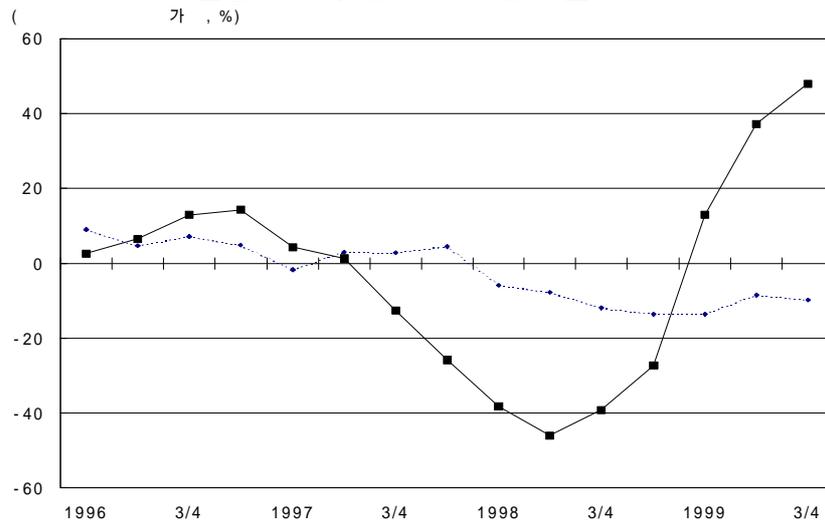
<총고정투자 추이>



- 투자내에서도 부문별로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음

- 99년 들어 설비투자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건설투자는 심각한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97년 이후의 투자 부진에 대한 상대적 반등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비교적 경기 변동에 빠르게 반응하는 설비투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건설투자는 아직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의 부동산 수요가 경기 회복이 상당히 진전된 후에 나타나는 건설투자의 경기 후행성과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됨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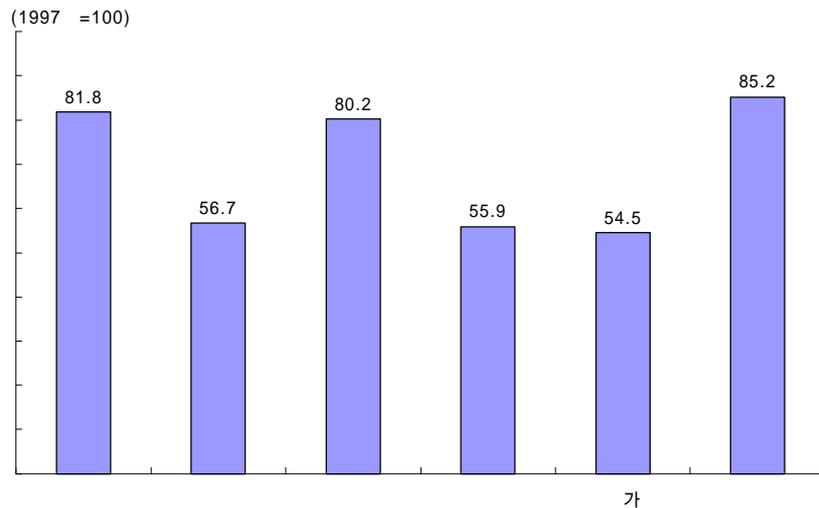


-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관련 주요 지표들이 최근 개선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음

- 99년 들어 국내기계수주, 기계류수입액, 설비투자 추계지수 등 설비투자 관련 지표들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98년의 부진에 따른 계산상의 높은 증가세에 불과하며, 실제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건설투자 관련 지표들은 설비투자 관련 지표들에 비해 다소 회복 시점이 늦어, 국내건설수주는 하반기 이후, 건설기성액과 건축허가면적 등은 2/4분기 이후 증가세

로 반전되었으나, 역시 97년 수준과 비교할 때 절반을 간신히 넘어서는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한 투자 관련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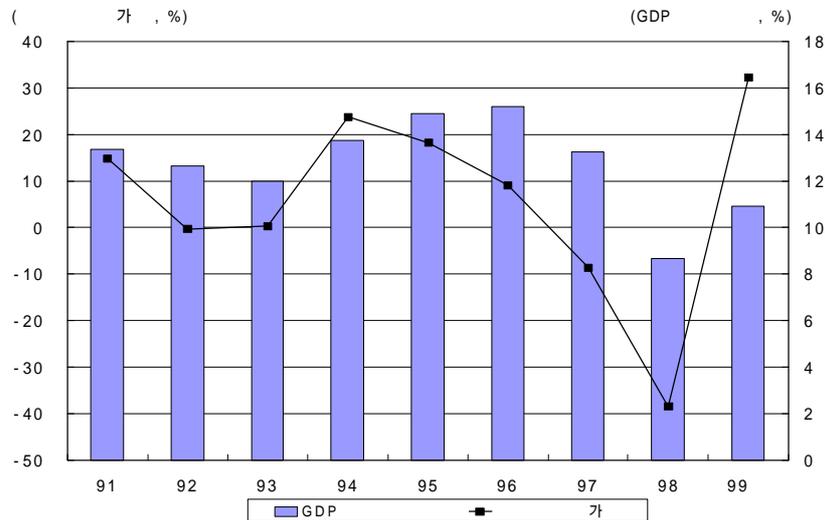


【2000년 전망】

- 내년 중에도 설비투자의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수출 호조와 소비 증가에 따라 기업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제조업 분야의 설비 확충 필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임
 - 98년 중 20억 달러 이상의 중고 선박 및 항공기가 해외로 매각된 것을 고려할 때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한 운수장비 투자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GDP 규모에 비해 설비투자가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는 점도 설비투자 증가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90년 이후 설비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15.2%를 유지하였으나 98년 중에는 심각한 투자 부진에 따라 8.7%로 하락하였음
 - 99년 들어 이 비율이 10.9%로 회복되었으나 아직 불황기였던 93년의 12.0%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어 향후 경기 회복 진전에 따라 설비투자 증가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단, 90년대 초반과 같은 장치산업의 대규모 투자는 어려울 것임

<설비투자 증가율 및 GDP 대비 비중 추이>



- 건설투자도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되나, 증가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건설투자에 대해 1~4분기 정도 선행하는 경향이 있는 건축허가면적이 최근 증가세하고, 국내건설수주도 회복세를 보이는 등 내년 건설투자 회복을 예고하고 있음
- 경기의 움직임에 다소 후행하는 성격을 가진 부동산 및 건설 경기가 내년 중에는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건설투자 증가세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임
- 다만, 98년 중의 국내건설수주 부진 현상이 99년 상반기까지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건설투자의 회복세는 제한될 것으로 보임

<투자 전망>

구분	1998	1999(전망)		연간	2000(전망)
		상반기	하반기		
총고정자본형성(%)	-21.1	0.6	8.0	4.5	11.5
건설투자(%)	-10.2	-10.8	-7.9	-9.2	7.7
설비투자(%)	-38.5	24.8	48.5	36.4	17.8

(mkjun@hri.co.kr ☎ 724-4015)

대외거래 : 수출입 동반 상승속 경상수지 흑자 대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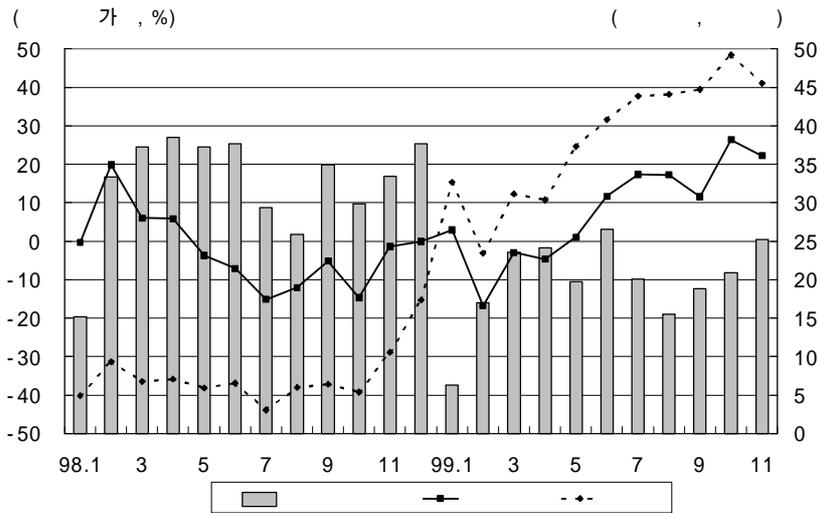
전 민 규

99년 중 수출은 하반기 들어 해외 여건의 회복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투자 및 소비 심리 회복과 수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10월 이후 40%대의 폭증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수출입의 동반 증가세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나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압도함으로써 경상수지 흑자폭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99년 동향】

- 99년 중 수출은 전반적인 호조속에 상반기 부진, 하반기 급증의 특징을 지님
 - 상반기 중 수출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 국내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98년 5월 이후 지속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엔화 강세, 아시아 경제 회복 조짐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10월 이후 수출은 2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며, 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수입은 경기 회복을 반영하여 두자리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98년 중 수입은 경제위기에 따른 수요 위축, 환율 급상승, 외환 사정 악화 등의 영향으로 35.5%나 감소하였으나, 99년 들어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산업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 원자재의 수입이 늘고 있으며,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으로 소비재와 원유 등의 수입이 폭증하고 있음
 - 또한 설비투자 회복세에 따라 자본재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용 원자재와 중간재, 부품 등의 수입도 수출 증가에 따라 동반 증가하고 있음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 수출 호조에에도 불구하고 수입 폭증, 서비스수지 악화 등에 따라 10월까지 경상수지 흑자 누계는 213.1억 달러로 전년 동기간의 346.2억 달러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수입 급증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폭이 전년에 비해 103.1억 달러 감소하였으며, 그 밖에 서비스수지도 17.1억 달러 악화되었음
- 서비스수지의 악화는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따른 화물 운임 지급 증가, 해외 여행 증가에 따른 여행수지 흑자 감소, 경기 회복에 따른 각종 수수료 지급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경상수지 추이>

(억 달러)

	98년				99년		
	1/4	2/4	3/4	4/4	1/4	2/4	3/4
경상수지	109.2	111.2	98.3	86.9	61.9	63.8	66.4
상품수지	97.2	114.6	106.0	98.6	67.8	80.1	71.9
서비스수지	6.2	1.7	-1.8	0.3	-1.2	-4.9	-2.9
소득수지	-7.1	-12.6	-11.1	-19.7	-10.2	-15.8	-7.3
경상이전수지	12.9	7.6	5.3	7.8	5.5	4.4	4.6

【2000년 전망】

- 99년 하반기 들어 개선되고 있는 대외 수출 여건의 호조가 200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이지만 연착륙에 성공하여 여전히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일본 및 아시아 경제는 2000년 이후 본격 회복세를 보이며, 아시아 외환위기와 함께 침체를 보이던 EU 경제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이 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이들 지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는 99년 하반기에 이미 나타나고 있음
- 유가 강세에 따른 對중동 수출도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이나, 중남미 및 동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은 해당 지역의 경제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한 부진할 것임
- 일본 경제의 회복 전망에 따른 엔화 강세 현상도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원화의 강세 현상도 최근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수출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보임

<지역별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98년	9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10월	11월 1~20일
선진국	6.1	-4.8	11.8	18.6	27.8	40.0
미국	5.5	12.2	26.0	28.2	38.6	43.2
EU	7.8	1.0	14.3	10.4	12.2	44.8
일본	-17.2	5.3	15.6	38.0	51.9	67.3
개도국	-9.9	-7.4	-5.4	11.0	24.9	23.1
아세안	-24.7	15.6	7.1	14.5	38.8	12.4
중국	-12.0	-1.8	3.4	27.2	39.7	38.7
중남미	2.3	-5.5	7.8	-10.2	4.9	26.2
중동	29.0	-22.5	1.6	4.7	6.9	8.3

- 수입은 경기 활황, 투자 증가, 수출 및 생산 호조 등을 바탕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제조업 생산 및 수출이 내년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국제 원유가의 강세가 2000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원자재 수입 증가율을 더욱 높일 것으로 우려됨
 - 한편 내년도 설비투자 증가율이 20% 가까이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 호조에 따른 투자 증가로 자본재 수입도 급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자본재의 대일 의존도가 높아 엔화 강세도 수입 증가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0년의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 97년말 이후의 무역 흑자를 이끌어 왔던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경제 위기에 의한 수입 위축 현상이 내년 상반기중에는 거의 소멸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입의 증가세를 억제할 뚜렷한 요인이 없어 무역수지 흑자는 100억 달러 이하로 줄어들 것임
 - 한편 외채 규모의 감소에 따라 소득수지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경기 호황에 따른 해외 여행객 증가, 로열티 지급 증가 등 서비스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보여 경상수지 흑자폭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수출입 전망>

구 분	1998	1999(전망)			2000 (전망)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상수지(억 달러)	400	123	114	240	87
무역수지(통관기준)	390	117	104	221	97
수출(억 달러)	1,323	661	750	1,412	1,505
(증가율, %)	(-2.8)	(-1.5)	(15.3)	(6.7)	(6.6)
수입(억 달러)	933	543	648	1,191	1,408
(증가율, %)	(-35.5)	(15.1)	(40.5)	(27.6)	(18.2)

(mkjun@hri.co.kr ☎ 724-4015)

물가 : 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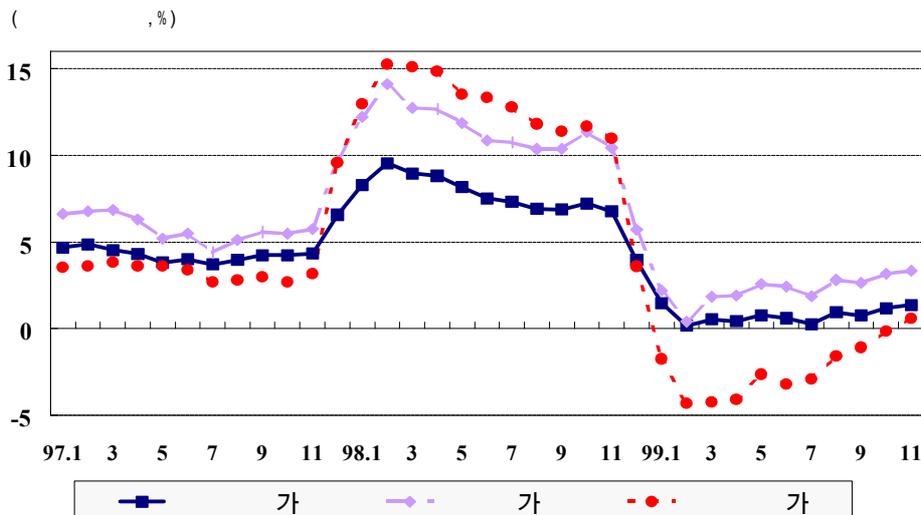
김 범 구

99년 하반기들어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과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에 따라 소폭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나, 연간으로는 0.8%의 저물가 기조를 유지할 것임. 2000년에는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은 미약한 반면 유가 등 원자재가격, 임금·금리 등 생산요소 비용, 공공·개인서비스요금 등의 상승세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99년 평가】

- (소비자물가) 하반기 이후 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나, 상반기중의 안정세에 힘입어 연간으로는 0.8% 상승에 그칠 전망
- 상반기중 안정세(전년말대비 0%)를 보였던 소비자물가는 하반기 들어 상승세(상반기말대비 1.5%)로 반전하여 1~11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말대비 1.5% 상승함
-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이 상승세를 주도함. 석유류 제품은 유가 급등 효과가 환율 하락에 의해 상쇄되어 전년동기대비 0.3%(기여도 0.02%p) 상승에 그쳤으나, 농축수산물은 태풍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7.4%(기여도 1.03%p) 상승함

<최근 물가 동향>



-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경우 전년동기대비 0.3% 하락하여 빠른 경기 회복

- 세에도 불구하고 수요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생산자물가) 하반기 들어 석유류 및 석유화학 관련제품의 가격 상승에 따라 8월 이후 4개월 연속 전월대비 상승세를 나타내며 상반기말대비 2.7% 상승함
 - 이에 따라 1~11월중 생산자물가는 전년말대비 1.2% 상승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전년의 급등에 따른 반사효과로 2.3% 하락함
 - 가공단계별 상승률을 보면, 원자재와 중간재는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각각 전년말대비 22.1%, 1.5% 상승한 반면 최종재는 환율 하락과 경쟁 심화에 힘입어 전년말대비 0.1% 상승에 그침

【2000년 전망】 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 우려

- 주요 물가 여건 전망
 - (상승요인) 초과수요 압력 증대, 금리·임금·지가·원자재가 등 생산요소비용의 상승세,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부동산경기 회복, 인플레이 기대심리 확산 등
 - (하락요인) 환율 안정세 지속,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 정부의 선제적인 통화정책 등
- 2000년에도 수요측면의 물가 상승압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내년도 GDP 성장률은 5.9%(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로 잠재성장률(5.5~6% 추정)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경제 전체의 총수요와 총공급 여력을 추정한 결과, 총공급 여력에 비해 총수요 수준은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총수요 및 총공급여력 추정 결과>

	경제성장률(%)	총수요*(조원)	총공급 여력(조원)	총공급 여력-총수요(조원)
1998	-5.8	425.9	437.9	12.0(2.7)
1999	9.3	446.0	459.3	13.3(2.9)
2000	5.9	464.1	480.7	16.6(3.5)

주 1) 총공급 여력은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80%일 때의 GDP 수준으로 가정하고 추정

2) ()는 총공급 여력에 대한 비중임

3) 총수요는 국민예정상의 “최종소비+총고정자본형성+수출-수입”으로 산출

4) 1999년과 2000년의 경제성장률 및 총수요 전망은 현대경제연구원에 전망치를 사용

· 한편 경기 부양책에 따라 전년말 이후 통화공급이 확대되었으나, 경제 전반의 불

- 확실성과 신용경색으로 통화유통속도가 하락(96~97년 0.16~0.18 → 99년 0.13)함에 따라 “통화 공급 증대 → 수요 증가”의 과급효과도 약화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원자재가격을 비롯한 생산요소 비용의 상승과 공공 및 개인서비스요금 상승세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은 올해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OPEC의 감산 합의 연장 가능성과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수요 증가로 원유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경기 회복세에 따라 임금·금리 등 생산요소 비용의 상승이 예상되고, 공공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여기에 총선을 전후로 하여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이 지속될 경우 수요측면의 물가 상승압력도 예상보다 조기에 현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기술적 요인으로 올해와는 달리 평년 수준의 물가 상승세만으로도 연간 상승률이 3~4%선까지 올라가게 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2000년 소비자물가 전망>

(전년동기대비, %)

	97년	98년	99년			2000년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소비자물가	4.5	7.5	0.6	1.0	0.8	3.7

(bkkim@hri.co.kr ☎ 724-4016)